

---

**시노드 교회를 위한 '성령 안에서 대화'  
자료집**

---





여는 글 .....	2
시노드를 위한 기도 .....	4
<b>‘성령 안에서 대화’ 이해 .....</b>	<b>5</b>
‘성령 안에서 대화’ 안내 .....	6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 .....	11
<b>‘성령 안에서 대화’ 실제 .....</b>	<b>12</b>
‘성령 안에서 대화’ 진행 참고 사항 .....	13
‘성령 안에서 대화’ 진행 순서 .....	14
<b>‘성령 안에서 대화’를 위한 성찰 질문 .....</b>	<b>16</b>
초점 .....	18
성찰문/성찰질문 .....	19
마침기도 .....	20
<b>부록 (용어집) .....</b>	<b>21</b>



현재 전 세계 교회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이행 단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2021년부터 시작된 제16차 총회는 준비와 거행 단계를 거쳐 이제 그 주요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주교시노드의 이행 단계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16차 정기 총회 기간에 교황님을 비롯한 지역 교회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 참여해서 이루어낸 「최종 문서」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시노드 이행 단계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은 「최종 문서」이기 때문입니다(「시노드 이행 단계를 위한 길잡이」 참조).

「최종 문서」는 시노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요청하고 있고(28항), 그 과정에서 '성령 안에서 대화'는 영적 쇄신의 주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에 대해 「최종 문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는 한계점은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듣고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풍성한 도구이다. 그 실천은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를 불러일으켰고 개인과 집단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쇄신의 여정으로 경험되었다”(45항).

'성령 안에서 대화'는 이번 주교시노드의 커다란 결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노드의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당의 소모임들에서부터 교구, 주교회의, 대륙 단계 모임에서, 그리고 바티칸에서 개최된 정기 총회 본회의(제1회기, 제2회기)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대화'는 공동체의 공동 식별을 돕는 도구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도 제2회기를 앞두고 이루어진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을 통해 사제들 역시 깊은 회심과 공동 식별을 경험한 바 있으며, 각종 교회 단체와 본당들에서 '성령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성령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의 구체적 방법과 아울러 익숙치 않은 방법, 지루함, 잘못된 이해 등의 장애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교회의 생활 방식이자 활동 방식’인 시노달리타스를 적용한 교회적 대화 방법인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하느님 백성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모두가 익히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체득해야만 합니다.

이에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공동 식별을 위한 문화를 진작하고자 이 자료집을 통해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최종 문서」를 지역 교회의 구체적 상황 안에서 읽고, 실천을 위한 공동 식별을 하는 데에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춘천교구 시노드 이행담당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 ‘성령 안에서 대화’ 이해





## '성령 안에서 대화' 안내

### 1. '성령 안에서 대화' 실시 배경

#### 1) 시노드 과정에서 도입된 방법론

2021-2024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열린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 총회는 지역 교회, 보편 교회 단계가 순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서로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식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회의'나 '토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며, 성령께 열린 태도로 듣고 나누는 방식이 강조되었는데, 그 핵심으로 '성령 안에서 대화'(Conversation in the Spirit)라는 방법론이 도입되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2) '성령 안에서 대화'의 도입 배경<sup>1)</sup>

'성령 안에서 대화'는 제16차 정기 총회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처음 1970년대에 캐나다 예수회 단체 ISECP에서 개발하고 발전시켰으며, "캐나다식 방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벨기에 예수회원들이 설립한 국제 단체인 ESDAC(공동 사도 식별을 위한 영신 수련)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며, 예수회 총회에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차 정기 총회 직전에 있었던 호주 전국 공의회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여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시노드 사무처에서는 산하 시노드 방법론 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에 따라 제16차 정기 총회 과정에 '성령 안에서 대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16차 정기 총회 과정 안에서도 발전이 있었는데, 초기 문서인 「예비 문서」와 「편람」에서는 의견 수렴의 기본 방법과 태도를 안내하면서, '영적 대화'(The Spiritual Conversation)라는 제목의 보조 자료를 지역 교회에 제공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제1회기 의안집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대화'(Conversation in the Spirit)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대화'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단계별 의미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시노드 단계에서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단계 모두에서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 Colleen Dulle, "The Jesuit roots of the synod's 'conversations in the spirit'", 2024.7.30. AMERICA: Juan A. Guerrero Alves, SJ, Óscar Martín López, SJ, *Coversación espiritual, discernimiento y sinodalidad*, Sal Terrae, 2023, 48면 참조.

## 2. ‘성령 안에서 대화’의 원리

1) ‘성령 안에서 대화’(Conversation in the Spirit)가 여타의 다른 대화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성령 안에서’(in the Spirit) 하는 대화라는 점입니다. 곧, 이 대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언제나 기꺼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령 안에서 대화’는 침묵과 기도로 준비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바를 경청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내 안에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됩니다.

3) ‘성령 안에서 대화’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나누면서 이어집니다. 참여자들을 주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려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4) ‘성령 안에서 대화’는 ‘적극적인 경청’과 ‘담대한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성령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발언은 논쟁과 토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5) ‘성령 안에서 대화’는 공동체 차원의 대화입니다. 곧 대화 안에서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 공동체를 체험하게 합니다. 곧 ‘나’의 개인적 관점을 잃어버리거나 개인적 차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공동체적 차원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하여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저마다 하느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6)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성령께서 공동체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가는 공동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공동 식별을 통해 공동의 사명을 의식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3. ‘성령 안에서 대화’의 실제

### 1) ‘성령 안에서 대화’의 사전 준비

(1) 진행자(퍼실리테이터) 양성: 본 모임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자들을 위한 별도의

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며, '성령 안에서 대화'의 원리와 지켜야 할 태도 등에 대해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 과정은 직접 '성령 안에서 대화'에 참여하면서 원리와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며, 진행자의 안내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미리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질문의 준비: 모임에서 성찰하고 식별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을 이끌 '성찰 질문'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작성할 때, 관련 담당자들이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질문을 찾아내는 것도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문제점, 고칠 점, 개선할 점 등을 직접 질문하는 경우, 부정적 분위기로 끌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개별적 성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모임 장소의 준비: '성령 안에서 대화'는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양식과 기도하는 분위기로 조성되도록 몇 가지를 준비합니다. 진행 양식과 성찰 질문지, 테이블과 의자, 십자가상과 초, 모래시계(3분과 2분 2개씩 준비), 필기도구와 기록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고, 공평하게 이야기하는 데 모래시계가 큰 도움이 됩니다.<sup>2)</sup>

(4) '성령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동체 전례 시간을 갖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미사나 성시간을 거행하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전례의 분위기를 이어서 '성령 안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2) '성령 안에서 대화'의 진행

모임 진행에 앞서 각 그룹에서는 나눔 내용을 기록할 서기와, 전체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발표할 발표자를 정합니다. 참가자들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 앉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자는 '성령 안에서 대화'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아래의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13면 참조)를 함께 읽습니다.

모임은 크게 세 번의 '침묵 기도'와 세 번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의 나눔은 각 단계별로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눔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바를 나눕니다. 세 번째 나눔은 **공동체적 식별**의 단계입니다.

(1) 시작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인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Adsumus Sancte Spiritus*)를 바칩니다. 이 기도는 스페인 세비야의 이시도로 성

2) 모래시계는 한국 주교회의에서 '성령 안에서 대화'에 도입한 도구로 '시노드를 위한 한국 교회 본당 사제 모임'(2024.9.2-4.)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560~636년)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수백 년 동안 공의회, 시노드, 또 여러 회의에서 이 기도를 바쳤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회기도 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기도 후 참가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이미 잘 아는 경우 자기소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2) 개인적 준비 - 침묵과 기도: 3분 동안 침묵 가운데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며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고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 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3) [나눔 1] 말하고 듣기: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이때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룹 전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핍니다. 각자 3분씩 말하고, 3명이 말하고 나면 2분 동안 침묵합니다.

(4) 침묵과 기도: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찰합니다. 묵상할 때 다음을 묵상의 요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느끼거나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 ‘나눔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된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었는가?’ ‘나눔에서 서로 조화를 체험하였는가?’

(5) [나눔 2]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 다른 이들이 말한 내용 중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 침묵의 시간에 마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번 나눔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미 나눈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을 나눕니다.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2분씩 말하고, 3명이 말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2분간 침묵 시간을 갖습니다.

(6) 침묵과 기도: 2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찰합니다. 나의 기분이 어떠한지, 오늘 기도와 경청을 통해 경험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가?’

(7) [나눔 3] 함께 이룩하기: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곧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는 우리를 어떤 단계로 함께 가도록 부르고 계신가?'를 살핍니다.

참석자 각자는 이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된다고 의식함으로써 자신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것들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동 식별이 필요합니다. 주변부의 그리고 소외된 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견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험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계속 울려 퍼졌다고 생각한 것,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8) 마침 기도: 주어진 기도문을 바치거나, 각자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감사의 기도를 짧게 돌아가며 바칩니다.



##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

### ※ 시노드 「편람」에서 제시하는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

1. 이 모임은 토론이나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영성적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집중합니다.
2. 이 모임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도록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이야기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3. 말하는 용기와 더불어 경청하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4.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 등을 가능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5.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6.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차례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집중합니다.
7.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의 목소리 톤과 느낌까지 공감하고자 노력합니다.
8.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닙니다.
9.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편안함을 찾는 태도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10. 함께 배우며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11.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12. 잘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에만 머물러서 낙담과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편람 2.3-4: ‘영성적 대화’ 자료 참조)

# ‘성령 안에서 대화’ 실제





## ‘성령 안에서 대화’ 진행 참고 사항



### ■ ‘진행자’의 역할

- 진행자는 모임의 분위기와 속도를 유지하며 참가자들이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각 단계가 제시하는 대로 서로 대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진행자는 ‘성령 안에서 대화’의 각 단계에 할당된 시간, 각 단계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 참가자들의 발언 시간 조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진행자는 성찰 질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되도록 진행만 담당하도록 한다.



### ■ ‘서기’의 역할

- ‘성령 안에서 대화’에서 참가자들의 나눔 내용을 기록하고,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다.
- 성령의 이끄심에 내어 맡기면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적는다. [나눔 1]과 [나눔 2]에서 참가자들의 나눔 내용은 최대한 그대로 기록한다. 이후 쉬는 시간에 [나눔 2]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과 수렴되는 의견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한다.
- 서기의 주관적 생각을 담거나 임의로 취사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의식하며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나눔 3]에서 모두에게 읽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서기가 정리한 내용을 경청하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발견한 공동의 열매는 무엇인지 식별한다.



### ■ 모래시계 사용 방법

-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모래시계(3분과 2분 2개씩 준비)를 사용한다.
- 본인 앞에 모래시계를 두고 발언한다. 모래시계의 시간이 남은 경우, 사용했던 모래시계는 그대로 두고, 다음 발언자는 다른 모래시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성령 안에서 대화' 진행 순서

※ 본 진행 순서는 시노드 사무처에서 제시한 양식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공동체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나누기 전, 나눔 내용을 기록할 서기를 먼저 정합니다.
- ✓ 여러 그룹이 동시에 대화를 나눈 후 전체 나눔의 시간이 있다면, 전체 나눔에서 발표할 발표자도 먼저 정합니다. 대화가 여러 번 진행된다면, 발표자는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 ✓ '성령 안에서 대화'를 진행할 때 모래시계를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은 모래시계를 자기 앞에 두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발표합니다. 침묵 시간에는 진행자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모래시계를 사용합니다.

### 1. 시작 기도 - '시노드를 위한 기도'

☞ 시작 기도로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6면).

시작 기도 후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합니다.

### 2. 개인적 준비 - 침묵과 기도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 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 [침묵,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 이번 대화의 주제는 ○○○입니다.

진행자는 참가자 중 한 명에게 준비된 성찰문을 낭독하도록 요청합니다.

성찰문이 여러 개일 경우, 참가자가 돌아가며 낭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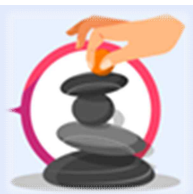
☞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마음 안에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진행자는 모래시계를 돌려놓아 참가자들이 보이게 두고,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성찰을 떠올리고 정리합니다. 이때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 3. [나눔 1] 말하고 듣기(각자 3분 발표)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동안 주의깊게 경청하고, 나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 4. 침묵과 기도

모두의 발표가 끝나면 3분간 침묵하며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 5. [나눔 2]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각자 2분 발표)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을 나누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안에서 나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 나눔 대화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2분이내로 나눕니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 6. 침묵과 기도

모두의 발표가 끝나면 3분간 침묵하며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 함께 나누고 경청한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 7. [나눔 3] 함께 이룩하기(각자 2분 발표)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즉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단계로 함께 나아가도록 부르고 계신가?”



☞ 서기는 기록한 나눔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서기는 기록한 나눔 내용을 모두에게 읽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서기가 정리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 참가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발견한 공동의 열매는 무엇인지 각자 2분 이내로 나누어 봅시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 8. 마침 기도

주제별로 준비된 '마침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 ‘성령 안에서 대화’를 위한 성찰 질문



## 복음화를 향한 교회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갈라 3,26-27).

### ○ 초점

교회 세대와 계층, 삶의 조건이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성찬례 안에서 일치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의 결국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며, 이를 위해 교구청은 실질적인 기반을 닦고, 본당은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와 본당이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사목 활동을 모색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가 내부 활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신자들이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이끄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환대와 나눔, 식별과 선교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선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시노드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교구의 모습을 함께 그려 봅시다.

주제어: 세례, 하느님 백성, 함께 걷는 교회, 복음화의 주체, 구원

**【성찰문】**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11항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화의 주제인 교회는 유기적이고 교계적인 제도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삼위일체에 뿌리를 내린 신비이지만,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순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모든 제도적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토대는 하느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주도권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276항 [열린 교회, 섬기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

교회는 지상의 권력들과 어깨를 겨루기보다는 오히려 “가정들 가운데 가정”으로서 자신을 내세우기를 열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언하고자 열려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 교회는 어머니이기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동행하고 희망을 지지하며 일치와 표징이 되고 ... 가교를 만들며 벽을 허물고 화해의 씨를 뿌리고자 집 밖으로, 성당과 제의방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 나는 우리 공동체 (본당, 교구)에 대해 소속감을 느낍니까? 나에게 그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 공동체(본당, 교구)의 구성원, 나아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해 나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 내가 경험한 우리 공동체(본당, 교구)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 마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이르셨으며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이 사명에  
저희도 세례로 동참하게 되었음을 일깨워 주셨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마침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새롭고 효과적인 선교 방식들을 찾아  
세상에 생명과 빛을 가져다주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도우시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 기도문

# 부 록





( \* 출처: <https://www.synod.va/en/resources/glossary1.html>)

## 시노드 Synod\*

시노드는 '교회가 관할 권위로 그리고 교회 규율로 정해진 특정 절차에 따라 교회가 소집되어,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개별 교회 차원, 지역 교회 차원, 그리고 보편 교회 차원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건으로, 로마 주교와 합의체적이며 교계적인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의 주재 아래, 교회의 여정과 특정 문제들을 식별하고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려는 결정과 지침들을 취하는 행사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0항 참조).

##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Christian Initiation\*

세례는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딸로 입양되어 하느님 백성이 되는 성사이다. 세례는 [성별, 민족, 사회적 지위의 구별 없이] 모든 신자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이 받은 세례에 힘입어 선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마태 28,19 참조).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따라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수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주도적인 참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120항).

견진성사는 신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는 성사이다.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세례 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외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원초적인 사명을 더욱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자녀로서의 관계로 초대하도록 부름받았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관계에 참여하게 하신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 헌장 11항)인 성찬례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자양분을 얻는다. 궁극적으로, 시노드 교회는 성찬례 거행을 통해 형성된다.

## 친교 Communion\*

친교는 삼위일체적 친교의 본보기에 따라 성직자들의 관계, 성직자와 신자의 관계, 신자들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영적, 성사적, 법적 유대이다. 공동 세례에 기반한 이 유대는 성찬례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현되고, 드러나며, 강화된다.

## 참여 Participation\*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참여와 공동 책임성의 교회이다.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함으로써 교회는 각자의 소명과 사명, 은사에 따라 모든 이가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름받는다. 이러한 참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라고 부름받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원들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경청하며, 분석하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하느님 뜻에 맞갖은 사목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나누도록 부름받는다. 따라서 사목적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때, 신자들의 의견과 체험에 주의 깊이 귀 기울여야 한다.

## 사명(선교) Mission\*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선교 교령 2항)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선교적 본질을 재발견하고, 온 세상에서 “지속적인 선교 자세”(「아파레시다 문헌」, 551항)를 유지하도록 권고하신다.



친교



참여



사명

## 합의, 의견 일치 Consensus\*

합의는 확실성이나 민주주의 다수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의 단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의 말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시노드 차원에서 합의는 기도와 내적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친교의 정신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동의 길을 식별할 수 있다.

## 자문 Consultation\*

자문은 교리, 도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신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과거에 자문의 관행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 단어로 표현되었다. “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debet.”(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논의해야 한다.)(프란치스코, 주교시노드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17.). 이번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목소리에 더욱 온전히 귀 기울이고 참여하는 더욱 시노드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문”의 경험을 넓히고자 한다. 시노드 여정은 성령의 목소리가 교구, 국가, 대륙, 그리고 보편 교회 차원에서 온 교회에 울려 퍼지는 오랜 과정의 정점이다.

## 식별 Discernment\*

시노드 과정은 합의(consensus)를 지향하는 식별 과정을 수반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식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인다. 이러한 식별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이다. 공동체적 식별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위해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별은 하느님의 은혜이지만, 기도하고,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적 성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실하고 의미 있고 환영하는 방식으로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등 우리 인간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러한 영적인 핵심에 대한 식별은 형제애, 치유, 친교, 선교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식별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신다.

## 경청 Listening\*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이고, … 신앙을 가진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그 각자는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 곧 ‘진리의 영’(요한 14,17)을 경청하여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알게 됩니다”(프란치스코, 주교시노드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17.). 국제신학위원회는 경청의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특성을 갖는 대화는 말할 때에나 들을 때에나 용기를 내포한다. 이것은 말하는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능가하려고 하거나 무딘 논거들로써 다른 이들의 입장을 반박하려고 하는 토론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성령께서 공동체적 식별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알려 주시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 가운데 같은 성령께서 ‘공동선을 위하여’(1코린 12,7) 드러내 보여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111항).

## 파레스시아 Parrhesia\*

파레스시아(Parrhesia)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 안에 불어넣으신 담대함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도록 그들을 파견했던 내적 용기이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담대함을 주시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시노드 과정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겸손하게 경청하고 담대하게 말하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복음화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파레스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요청되는 성령 안에서의 담대함은 신뢰와 솔직함, 그리고 ‘하느님의 넓은 지평 안으로 들어가, 세상 안에 일치의 성사가 있으며 그래서 인류는 추방당하고 길을 잃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프란치스코, 주교성에서 한 연설, 2014.2.27.)하려는 용기이다.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생생하고 항구적인 체험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원천이고, 새로운 삶의 누룩이며, 선교 임무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도전의 발판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121항).



## 신앙 감각 Sensus fidei\*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인 세례를 통한 성령의 도유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에서 드러난다.

“세례 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성화하는 힘이 작용하여 복음화를 재촉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이 도유에 힘입어 거룩해집니다. 이는 **믿음에서** (in credendo) **오류가 없게 합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여도, 하느님 백성은 믿을 때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백성을 진리 안에서 이끄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인류에 대한 당신 사랑의 신비의 일부로, 하느님께서는 신자들 전체에게 신앙의 본능, 곧 신앙 감각을 심어 주시어 무엇이 참으로 하느님의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의 현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적인 실재들과 어떤 공본성(connaturality)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도 그러한 실재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혜도 주십니다”(『복음의 기쁨』, 119항).

이러한 공본성은 “‘교회와 더불어 느끼기’(sentire cum ecclesia)’, 곧 교회와 조화를 이루며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순례의 여정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일치룰 이루도록 한다. 또한 그것[교회와 더불어 느끼는 것]은 그들의 ‘함께 걸기’에 열쇠가 된다”(『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90항).

## 통합 생태론 INTEGRAL ECOLOGY

생태 문제를 자연 생태의 차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 차원을 함께 바라보는 총체적 접근 방식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137-162항 참조)에서 제시된 것으로, 인간의 삶과 환경, 경제 구조, 사회 질서, 문화, 일상생활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은 모든 영역의 조화로운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폭넓은 전망으로, 과거의 단편적인 환경 담론과 차이가 있다.

통합 생태론의 중심에는 공동선의 가치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인류의 평화와 공존만이 아닌 공동의 집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한다. 곧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91항)라는 원리를 따라,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 세대, 지역과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생태적 회심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이를 위해 통합 생태론은 환경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와 인간의 위기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 위기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 빈곤 퇴치와 인간 존엄의 회복, 평화와 정의, 생명 보호와 자연 보존은 각각 따로 다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상호 작용을 고려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MEMO

---